



발명으로 만드는 일자리,
특허로 더하는 행복



보도자료

www.kipo.go.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과 장 이대진 042-481-8621 사무관 강지숙 042-481-8660
	2016년 6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6월 14일(화)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IP 창조 Zone 충남에 8번째 개소로 전국 구축 완료

- 전국 IP 창조 Zone 아이디어 창업지도 완성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6월 15일(수) 오후 3시에 충남지식재산센터(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서 전국 8번째로 '충남 IP 창조 Zone'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특허청 이영대 차장, 충청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형기 회장 등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IP 창조 Zone'은 지역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지재권 교육,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모형제작,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이다. '14년 6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자체 협조아래 전국 주요 도시*에 구축되어 왔으며 올 6월로 운영된 지 만 2년이 된다.

* (개소) '14년 강원, 광주, 대구, 부산 → '15년 인천, 전북 → '16년 제주, 충남

지난 2년 동안 총 1,767명의 지역주민이 IP 창조 Zone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총 240건의 특허출원이 완료되었으며 총 82명의 신규 창업자가 발굴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생 수는 부산이 4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출원 지원은 강원도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천의 경우 “고교생 대상 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구의 경우 “기업 현장 견학”을 가는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충남 IP 창조 Zone의 개소로 전국을 아우르는 아이디어 창업지도가 2년만에 완성되었으며, 충청남도는 인구성장률이 높고, 디스플레이, 철도, 자동차, 항만 등 다양한 산업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지역인 만큼 충남 IP 창조 Zone이 충청남도 지역의 신규 IP 창출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국적으로 구축된 8개 IP 창조Zone을 통하여 지역특색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협력·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디어의 IP 권리화 지원 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2년간 IP 창조 Zone 추진실적

□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14.6월~'16.5월)

구 분	강원	광주	대구	부산남부	인천	전북	제주	합계
입교생수	378	297	275	420	202	170	25	1,767
수료생수	263	196	188	383	169	166	-	1,365
수료율(%)	69.6	66	68.4	91.2	83.7	97.6	-	77.2

* 입교생수와 수료생수는 창작교실(발명·창업교육)과 특허연구실(아이디어 고도화 교육) 두 과정의 교육생 수를 합한 수치임

□ 특허출원 지원실적('14.6월~'16.5월)

구 분	강원	광주	대구	부산남부	인천	전북	제주	합계
실 적(건)	77	46	43	49	14	11	-	240

□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연계 성과('14.6월~'16.5월)

구 분	강원	광주	대구	부산남부	인천	전북	제주	합계
기창업자	56	51	21	49	39	30	10	256
신규창업자	5	11	18	37	6	5	-	82
창업지원 사업연계	17	16	4	37	9	-	-	83
창업보육실 입주지원	30	8	25	13	11	3	-	90

* 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신규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신규 취득자

* 창업보육실 : 창업 준비 및 창업 컨설팅 지원 공간(IP 창조 Zone + 타 기관)